



솔직함과 단순미를 지향하는 게 북디자인 철학이죠

글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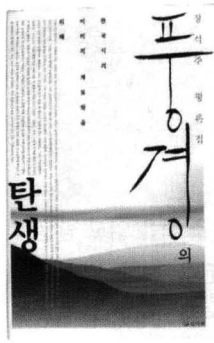
한 번, 그것도 한 시간 가량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해 쓴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다. 인터뷰이나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나 그 부담의 질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몇 십년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데, 그렇다고 지면 한 장 채우자고 인터뷰를 하는 무모한 짓은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기에 만나는 인터뷰이를 냉철한 머리뿐만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진정한 이야기는 시작되기 때문에.

부담의 양을 최소화 하는 나름의 방법은 머릿속에 방을 만들어놓고 많이 생각하고, 보고, 들어서 공간 채우 듯 쌓아두는 일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은 인터뷰가 진행된다. 그런데 솔직히 깐깐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씨디자인 조혁준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편안한 인터뷰를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우였다. 파주출판문화단지 내에 있는 국민서관 내 씨디자인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어쩌나 눈이 맑고 깊은지 꼭 개구쟁이 어린아이를 보는 듯 했다.

“한글은 세로쓰기를 바탕으로 창제된 글자입니다. 한글 자모의 곳곳한 세로 기둥들이 글자의 중심을 이루면서 글줄(문장)의 중심을 온전히 잡아 주지요. 현재 한글은 그 독창적 디자인의 결과로 세로쓰기, 가로쓰기 등 다양한 조판 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읽기 편한 조판이 가능합니다. 정겨운 글,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세로로 쓴 한글의 독특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책을 출판합니다.”

작년에 백상예술상을 수상한 <옛날 옛적에> 시리즈 중 <도깨비와 범벅장수>의 뒷날개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아이들에게 한글도 세로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그에게서 한글을 사랑하는 깊은 정이 배어 났다.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한길사와 문학과지성사에서 북디자이너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은 ‘조혁준표’ 북디자인을 만들어 준 토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한동안 제목 그 자체의 의미, 리듬감에 몰입했던 적이 있다. 제목 글자가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가를 두고 고민하면서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가



지를 실험해 봤던 시기다. 최근 그의 디자인 경향은 솔직함과 단순미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남겨놓고 떨어낸다.

한길사에서 근무했던 시간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출판시장 속에서 북디자이너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고민하고 깨우쳤던 때다. 문학과지성사로 옮긴 후 6년의 세월은 북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시기이다. 박한 급여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데는 “조용히 알아서 잘 하세요”라며 그를 신뢰해 준 상사들의 리더십이다.

한길사와 문학과지성사에서 갈고닦은 실력으로 씨디자인을 운영해 온 지도 벌써 4년을 바라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북디자이너로 진로를 정했다는 그는 15년을 책과 함께 텅굴었다. 처음에는 가슴 설레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책을 향한 애정은 식을 줄 모른다. 그는 책이라는 매체가 가져야 할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피력했다.

“최근 책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책에는 쓸 만한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똑같은 고전을 내더라도 주석과 각주를 꼼꼼히 달고, 번역에도 신경을 쓰는 출판사가 있는 반면 쉽고 편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책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출판사가 요구하는 시장의 포지션도 있는데, 특성에 맞춰서 차별화된 지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별화된 지점은 책의 내용이나 꼼꼼한 편집과정이 그 역할을 하겠지만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북디자이너를 꿈꾸는 이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쌓으라고 조언한다. 북디자이너는 저자들, 넓게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길사**